

월/요/광/장

김성재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된 좌급의 국가경쟁력이 교육경쟁력이라는 데 의미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가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명제는 반증 되기 어렵다.

부족하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나,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육 관련 정치인이거나 관료가 교육비리를 저지른다.

교육비리의 정치 경제학

령당이 속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그래서 교육비리는 교육학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정치경제학의 문제다.

정부가 이미 이 지역 대학인 조선대를 비롯해서 몇몇 사립대학에 구 경영진을 일부 복귀시켰다. 해당 대학 구성원들은 현

하는 사립대학이다. 돈거래의 규모가 크고 학교법인의 불투명한 대학경영이 그 원인이다. 무엇보다도 비리 사립대학의 뒤에는 언제나 부도덕한 정당과 정치인이 그림자처럼 붙어다닌다.

정부가 이미 이 지역 대학인 조선대를 비롯해서 몇몇 사립대학에 구 경영진을 일부 복귀시켰다. 해당 대학 구성원들은 현

정부여당이 국가경쟁력 창출의 산실인 교육기관을 비리사학으로 환원시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비리 경영진 복귀를 돕고 있는 행태를 보고 비리 사학의 전형적인 부패행위인 정당과 정치인의 스폰서링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정부여당은 교육비리가 무엇인지 분명한 개념정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간을 위한 정치자금 안정적으로 마련할 목적에서 스스로 교육비리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교육비리의 본질과 현실을 외면한 채 새발의 피나 다름없는 일부 비리 교장·교원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행위는 위선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오장원



이제 대학은 더 이상 외부환경과 경쟁의 무중지대가 아니다. 화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와 같은 근본적 이유를 포함한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교육시장의 개방, 정부의 재정지원 한계, 대학 간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지속, 학생과 학부모의 정교하고 정당하며 세련된 요구, 정기술의 비약적 발전 등 대학이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헤쳐나가야 할 외부 환경변화는 더욱 복잡하고 역동적이 되어가고 있다.

현실이다. 대학운영의 기능성과 유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규모 대학일수록 개혁의 성과가 구체적인 형태로 대학에 반영되기 쉬운 반면에 재정과 조직이 비대해진 대규모 대학은 경직성이 강해 대학혁신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쉬운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무한경쟁시대 지방 대학의 생존법

그에 따른 적절한 변신을 하기에는 이미 몸집이 너무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경쟁적 변화를 따라가는데 버거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1세기 사회 환경에서는 지방에 소재한 소규모 대학들의 경우 위기를 기회로 승화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측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대학은 교육과정을 신설 혹은 폐기하기도 하고 교수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기도 함과 동시에 학사운영 시스템도 순발력 있게 변화시키는 등 대학은 한시도 쉬없이 시선을 최종 고객인 학생들로부터 떼지 않아야 한다.

위를 사례에서 보듯 이제 대학들은 진정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했으며 향후 몇 년 안에 세계 초일류 대학들의 국내 고등 교육시장 진출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자지만 강함' 대학만이 험난한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작년엔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다. TV에는 누렇게 익은 황금 들녘의 장면이 나왔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기 개그맨들이 나와서 벼를 베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김경자·순천시 안동동

농촌체험 프로그램 아이들 교육에 효과적

작년엔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다. TV에는 누렇게 익은 황금 들녘의 장면이 나왔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기 개그맨들이 나와서 벼를 베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김경자·순천시 안동동

기고

김관중



UN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0년간(1906~2005) 전세계 평균기온이 0.74℃ 상승하였고, 화석연료에 의존한 대량소비형 사회가 계속된다면 금세기말(2090~2099) 지구의 평균 온도는 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사회가 기후변화 전환경로로 변경된다면 1.1℃, 18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기후변화와 수자원 관리

본말게 된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원), 70년 이후 5~7년 주기로 다목적댐에 가뭄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뭄은 용수부족, 농작물 수확량 감소, 수질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호주는 2002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까지 부족해지면서 수자원 확보와 물절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

또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정수장 및 마상수도 등은 수도시설이 노후화되고 시설운영도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2013년까지 50개주 가운데 36개주가 물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서부지방의 가뭄은 심각한 상태로 텍사스주는 2007년

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기술에 1

백화점 상품권, 지폐 크기에 맞춰 작게 만들었으면

현재 새로 발행해서 쓰이는 5천원 짜리와 1만원 짜리 지폐는 과거에 쓰던 것보다 크기가 확실히 줄어들었다.

▲유근우·광양시 황길동

시설

금호타이어 공장가동 즉각 재개돼야

금호타이어 광주 1공장과 곡성 1공장이 원재료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한다. 그동안 우려되는 점은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협력업체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 수천명에 이르는 금호타이어 및 협력업체 종업원들도 길거리에 나왔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21일부터 이들 공장에 대해 휴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사 협상 지연으로 채권단의 긴급 자금 지원이 미뤄지면서 원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채권단과 노사는 공장 가동을 즉각 재개해달라 한다. 회사가 어떻게 되든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금호타이어의 가동중단은 워크아웃 상태인 회사는 물론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당장 타이어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돼 국내 판매망과 해외 수출선이 끊길 수 있다.

정부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호타이어 사태에 대해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 개입, 정상화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개월째 대금을 받지 못해 이미 베팅 끝에 물린 270여 개의

40년만에 지역민 품에 돌아온 삼학도

목포 삼학도가 '희망의 섬'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요트 마린 시설이 문을 열었고 섬의 옛 모습도 살아나고 있다.

며,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삼학도는 2002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야전으로 채택했다.

삼학도는 환경보존의 교육장이다. 무분별한 간척사업으로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체험장인 셈이다.

삼학도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야전으로 채택했다.

삼학도는 환경보존의 교육장이다. 무분별한 간척사업으로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체험장인 셈이다.

無等鼓

절기는 청명(淸明)을 향해 달려가는데 떠나가는 통장군의 발걸음이 무겁다.

천500여 달러를 투자해 500만 개의 일 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녹색바람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녹색 고강력'에서 찾자는 '녹묘(綠杼)'론을 펼치고 있다.

녹색시대

그 의미는 사용 주체가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70년대엔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벼를 내세워 '녹색혁명'을 피했다.

시에 녹색산업을 비롯 녹색경영, 녹색기술, 녹색에너지 등 그린코드의 용어들이 붐처럼 쏟아지고 있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1952년 4월 20일 창간. 대표전화 222-8111. 편집국장 李善吉. 1952년 4월 20일 창간. 대표전화 222-8111. 편집국장 李善吉. 1952년 4월 20일 창간. 대표전화 222-8111. 편집국장 李善吉.